
 인천광역시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자	2022년 9월 6일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자원순환정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원재활용 팀장 • 담당자 	최명환 ☎440-3571 이정아 ☎440-3578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인천 막걸리 병, 투명하게 바꿔 재활용률 높인다
인천시-인천탁주 업무협약 체결 ... 10월부터 초록색병 투명페트병으로 교체
- 연간 약 146만 개의 고품질 투명페트병 양산 기대 -

인천시가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인천탁주와 손잡고 막걸리 병 재활용률을 높인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6일 지역 대표 막걸리회사인 인천탁주와 투명페트병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. 초록색 막걸리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교체·생산해 재활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.

초록·파랑·백색 등 유색 페트병은 중·저 품질의 재활용품으로, 투명페트병과 같이 고부가가치 재활용 자원으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다.

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 먹는 샘물(생수)과 음료류 용기에 대

해서는 투명페트병 사용이 의무화 됐으나 막걸리 등의 주류 용기는 해당되지 않는다.

이에 인천시는 주류용기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인천탁주와 손잡고 10월부터 유색 막걸리 병을 투명페트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. 인천탁주는 연간 약 2,300만 병의 막걸리를 생산해 인천시 전역 및 경기 일원에 판매 중이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탁주의 ‘소성주 플러스’를 투명페트병으로 교체하면, 연간 약 146만 개(약 41.61t)의 고품질 투명페트병이 생산되는 셈이다.

인천시와 인천탁주는 막걸리 병의 투명페트병 전환과 더불어 소성주 플러스 라벨 내 투명페트병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소개하고 재활용품을 유가 보상해주는 인천시 자원순환정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.

시는 투명페트병으로 전환한 ‘소성주 플러스’ 출시 시점에 맞춰 투명페트병 집중수거 캠페인 ‘심폐(PET)소생 프로젝트’에 나설 계획이다.

박유진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“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투명페트병의 재활용률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.”며 “재활용 활성화 및 일회용품 감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자원순환 초일류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※ 협약식 사진은 행사(16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